

얼마나 지극하고 애뜻했길래 이렇게 한 몸이 됐을까

■ 연리지(連理枝) 이야기

중국 후한(後漢)의 학자이자 서예가인 채옹(蔡邕, 자는 백계; 132~192)은 효성이 지극했다. 어머니가 병으로 자리에 눕자 삼 년 동안 옷을 벗지 않고 간호했다. 병세가 악화되자 백 일 동안 잠자리에 들지 않고 보살폈다. 마침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무덤 곁에 초막을 짓고 시묘살이를 했다. 그 후 채옹의 방 앞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자라더니 서로 맞붙어 성장하고 나중에는 나무의 곁이 이어져 한 그루처럼 되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채옹의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와 자식이 한 몸이 된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당(唐)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 자는 낙천, 호는 향산거사; 772~846)는 당나라 현종과 양귀비의 뜨거운 사랑을 기려 '장한가(長恨歌)'를 지었다. 장구한 구절 가운데 마지막 부분은 이렇다.

七月七日長生殿 夜半無人私語時
(칠월칠일장생전 야반무인사어설)
在天願作比翼鳥 在地願爲連理枝
(재천원작비익조 재지원위연리지)
天長地久有時盡 此恨綿綿無絕期
(청장지구유시진 차한면면무절기)
칠월칠석날 깊은 밤, 장생전에서 남 몰래 한 약속

하늘에선 비익조 되고 땅에선 연리지 되자고
하늘과 땅은 끝이 있건만 이들의 사랑은 가이 없구나.

비익조는 날개와 눈이 한 쪽뿐인 상상의 새다. 그러므로 각각의 한 쪽 날개와 한 쪽 눈이 합쳐져야 온전한 한 마리의 새가 될 수 있다. 연리지(連理枝)는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한 나무처럼 자라는 것이다. 채옹전(蔡邕傳)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함을 나타내고, 장한가(長恨歌)에서는 남녀 사이 진한 사랑을 비유한다. 서로 가까이 있는 두 나무가 자라면서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을 연리(連理)라고 한다. 뿌리가 이어지면 연리근(連理根), 줄기가 이어지면 연리목(連理木), 가지가 이어지면 연리지(連理枝)다.

나무가 서로 인접해 있으면 둘 다 잘 자라기 어렵다. 생존경쟁으로 둘 다 죽거나 둘 중 하나만 살아남는다. 그러나 연리라는 현상이 일어나면 서로의 특성이 유지되며 양분을 공유해 둘 다 살아남을 수 있다. 이 현상은 명칭만큼이나 아름답다. 좁은 땅에서 아웅다웅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서로 돕고 사는 삶이 상상하는 길임을 알려준다.

산양(山羊)은 다른 야생동물이 살기를 포기한 척박한 기암절벽을 주서식으로 한다. 한마디로 훌륭한 등반가다. 만약 산양이 세계 주요 고봉(高峰) 등반에 나선다면 누구도 기록은 갱신하지 못할 정도로 훌륭한 등반가다.

털이 복실하고 소과에 속하는 산양은 그 모습에서 태고의 신비한 풍모를 풍기고 있다. 다른 어떤 동물도 절대 접근하지 못하는 절벽 사이를 뛰어다

당나라 현종과 양귀비의 애뜻한 사랑 하늘에는 비익조, 땅에선 연리지 되자 하늘 끝은 있어도 사랑은 가이 없다... 두 나무 만나는 연리지는 상생 아이콘

니며 산다. 암벽 주변을 주서식으로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생김새에서 풍기듯 우직함과 끈질긴 근성으로 특수하게 진화해온 결과다. 전적이 범접치 못하는 암벽생활에 적응해온 산양의 생태는 신비로움 그 자체다.

어떤 험준한 바위도 산양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한 번 마음먹은 바위는 단숨에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산양의 야성이다. 때로는 살며시, 때로는 매우 힘차고 거칠게 암벽을 탄다.

그러나, 산양은 철저히 혼자다. UN 가입을 거부하는 외로운 독립국가다. 영하 40도의 추위에도 혼자서 버틴다. 다른 산양이 다가오지 못한다. 다가가지도 않는다. 비록 암벽 사이일망정 부둥켜안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겨울나기에 좋을 텐데, 극단적인 배타성을 산양체질, 산양근성이라고 한다.

빙난방 시설이 없는 감옥생활은 여름이 좋을까요? 겨울이 좋을까요? 더운 여름에는 함께 수감생활을 하는 타인 자체가 증오스럽다고 합니다. 존재 자체가 열기를 뿜는 물체에 불과하니, 겨울엔 어쩔 수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온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추상적인 사랑이고 어쩌고는 사치에 불과합니다. 그저 상대의 온기 자체가 축복이니까요.

당신은 연리지가 되고 싶은가요? 산양을 닮고 싶은가요?



이우상 <소설가·동국대 문학과 겸임교수>



30년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이 있는 주얼드림 은(銀)의 모든 것 총집합

염주, 단주, 금강저, 반지, 목걸이, 핸드폰줄, 자수정, 호안석, 백옥, 청옥

| | | | | |
|-------------------|-----------------|-------------------|-------------------|----------------|
| 1번 7~7.4mm 86,000 | 2번 10mm 109,000 | 3번 호안석 8mm 39,600 | 4번 청옥 10mm 54,000 | 5번 반야반지 34,000 |
| 6번 20,500 | 7번 39,000 | 8번 30,000 | 9번 32,000 | 10번 20,500 |
| 11번 20,500 | 12번 61,000 | 13번 20,500 | 14번 48,000 | 15번 62,000 |

본사 공장 및 영업부 : 경기도 고양시 대저동 793-2번지
031)969-9495 / 070-4128-9495 / 011-441-9495
www.jeweldream.co.kr * 책자(카타로그)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신청해주세요.
농협 356-0460-2307-43 예금주 : 주얼드림

주얼드림 NAVER **주얼드림**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희응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아이티후불탱화